

산단 배후지, 살기 좋은 마을로

전주시, 팔복 새마을사업 마을 인프라 구축 전개 생활도로 3개소 확장·마을광장 1개소 등 신규 조성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추천마을에 공원과 주차장, 마을광장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지만 개발에서 소외되고 공장 오염 피해와 저지대 상습침수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됐다.

전주시는 팔복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마을의 주축인 4미터 미만의 추천4길을 6미터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 생활도로 3개소를 확장기로 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5개소 29면, 소공원 5개소, 마을광장 1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마을의 어두운 골목길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0여개소의 보안등도 교체한다.

이와 함께 시는 팔복새마을사업 일환인 인프라구축사업과 발맞춰 전주천 제

방 아래 소로개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팔복동 일원 32.6km의 하수관을 정비하는 팔복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팔복새마을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이 투입돼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4만8000㎡)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 2017년 집수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지난해에는 생활도로 확장을 위한 빈집 철거

및 남·여 경로당 신축 등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민공동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커피공동체는 지난 4월 임시 커피숍을 오픈한 뒤 정식 오픈에 대비해 노하우를 쌓고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결성된 비누만들기 공동체는 올 연말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신계숙 사회정책지원단장은 “팔복새마을을 조성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인만큼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구축 등 물리적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23일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젠더 트레이너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시아권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 11개국 젠더 트레이너 20여명이 전주시 인권정책과 우수사례 학습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11개국 젠더 트레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주 인권정책 우수사례 배우러 왔어요”

아시아 11개국 젠더 트레이너, 전주시 첫 방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등 인권정책 학습

성 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연대와 우수사례 학습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은 아시아 11개국 활동가들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전주시 인권정책 등 우수사례를 배웠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젠더 트레이너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시아권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 11개국 젠더 트레이너 20여명이 전주시 인권정책과 우수사례 학습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상호 학습과 연대를 통해 한국 및 아시아 내 성 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젠더 트레이

너들의 이날 전주방문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다.

아시아 젠더 트레이너 참여자들은 2019년 지자체 여성정책·사례 공유의 첫 단추로 이날 전주를 찾아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중인 선미촌 사례를 토대로 여성인권 옹호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증받은 선미촌을 방문해 골목을 걸으며 성매매집결지가 여성인권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시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됐던 장소에서 여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

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칭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젠더 트레이너 참여자에게 △전주시의 사회혁신에서 성평등 사업의 의미 △성평등 생커스 체인사업 △생활연구공모사업 등 사회혁신센터 성 평등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등 전주시의 정책사례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시는 이번 아시아 젠더 트레이너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현안 공유 및 상호학습을 위해 국내외 젠더 전문가 및 공무원들과의 지식·정보 교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는 여성인권 착취·침해의 공간에서 인권옹호의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인재육성재단, 2학기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교·대학생 대상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 미래 전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윤여웅·김승수)은 지난 23일 2019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요강을 재단 홈페이지(www.jinje.kr)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게시하고 장학생 선발에 나섰다.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규모는 고등학교 15명과 대내 대학생 30명, 도외 대학생 20명 등 총 65명이다. 장학금은 고등학교 65만원, 대학생은 20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8월 26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 고등학교는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또, 대학생은 전북지역 고등학

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 요건의 경우 고등학교는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학생이다.

선발기준은 총 평점 100점에 학업 성적 50점과 생활도 50점에 자원봉사 실적시간을 가산점으로 최대 1.5점 범위 내에서 반영해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위치한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1-5082)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nyou4@jinje.kr)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1527명(고등학교 275명, 대학생 1203명, 특기 및 특별 장학생 49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김진영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사업 외에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학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이강아 재할사 대표 예수병원에 금품 후원

이강아 재할사 대표가 예수병원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했다.

금암동에서 이강아재할사를 운영하는 이강아 대표는 지난 23일 예수병원을 찾아 김철승 병원장에게 500백만원과 300여만원 상당의 장애인전동차 급속충전기를 전달했다.

이강아 대표가 후원한 장애인 전동차 급속충전기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충전하는 충전기로 30분 내에 충전된다.



전주시,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 개최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전주시가 도전하는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사회혁신과 사회경제에 대한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 현대미술관(JeMA)에서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적기업 청년서포터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회혁신과 사회경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초청)이 사회경제 현장에서 10년 동안 직접 체득한 사회혁신과 사회경제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공유했다. /송효철 기자

‘슬로’ 가치 실현 앞장

전주 세계슬로어워드 수상자 선정

국내·미친 서각마을 전주기접놀이 보존회

국외·이탈리아의 살로르노시 수상 영예

붕괴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켜온 충남 보령시 미친 서각마을, 전문문화 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힘써온 전주기접놀이보존회, 도시정체성을 살린 살로르노시 등 3개 단체가 올해의 전주 세계슬로어워드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국·내외에서 슬로시티의 철학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기관·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부분 2개 단체와 국외 부분 1개 단체를 '제3회 전주 슬로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 슬로어워드'는 슬로의 철학과 목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먼저 국내부분에서는 붕괴된 마을 공동체를 '마을 전체가 문화학교'라는 비전 아래 주민 스스로 주도하합을 위한 마을축제를 만들고 20여개 분야 마을문화학교를 운영해 갈등을 극복해낸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미친 서각마을(대표 정지완)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 수백년 이어진 민속문화인 전주기접놀이를 21년째 재현 및 전승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한 전주기접놀이보존회(대표 심영배)에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국외부분에서는 도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슬로시티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이탈리아 살로르노시(시장 로렌도 라체리)가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살로르노시는 청소년과 시민, 정치인들이 함께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혁신 프로젝트인 '살로르노 청년 워크샵', 음식과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주요 콘텐츠로 이탈리아의 약 20여개 슬로시티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참가하는 '살로르노 슬로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왔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제3회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 시상식과 사례발표를 위해 직접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국외 수상자는 항공비와 체류비로 대체)이 수여된다.

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수상자들은 슬로시티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앞장서온 분들로, 이번 전주 세계슬로어워드 수상과 사례발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전 세계 도시들이 슬로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여인숙 화재 용의자 검거

방화 전과 있어 '목비권 행사'

지난 19일 3명의 노인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방화 전과가 있는 60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장기 투숙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기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강석훈 기자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km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범행 장소에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곳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방화 전과가 있는 A씨는 현재 목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아동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

전북경찰청, 학원연합회 운영자 대상 예방교육 진행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라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도내 11개 권역에서 아동학대 특별법상 신고의무자인 전북학원연합회 학원 운영자와 교사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전북학원연합회는 도내 학원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로,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입시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독서, 무용, 컴퓨터 등 7개 분야와 시, 군별회 약 3000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 등 가족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생활 공간인 학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근절하기 위함이다.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을

확인해보면 아동학대 중 대부분 가정내(80.4%) 및 부모, 친인척(81.0%)에게서 발생했다.

교육을 받은 학원 운영자들은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전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치안은 지역사회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